

ARARIO GALLERY

1. Title of Exhibition Jonathan Meese

2. Date of the Exhibition 2005. 9. 10 ~ 2005. 10. 30

3. Opening Reception 2005. 9. 10, 7:00pm

4. Special Program

1) Artist's Performance: 2005. 9. 10 7:00pm, Arario Green Sculpture Park

5. Total Number of Works in Exhibition 60

6. Exhibition Concept

Jonathan Meese, born in Toyko in 1970, is a young German artist who lives and works in Berlin and Hambrug. He was well known for having always collected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for his work, constantly observed and recorded something through vast amount of drawings, paintings, photographs, books, brochures, and films. He gained international fame in 1998 Berlin Biennale, and has exhibited numerous works in many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areas of Europe and US. Arario Gallery that held not only solo exhibitions of two great German artists, Thomas Ruff and Sigmar Polke, but also a planned show to display a lot of painting works of the young artists in Leipzig who are constituting a new trend both in Germany and abroad, is pleased to introduce another aspect of contemporary German art through this Jonathan Meese' solo exhibition.

His recent works cover a wide scope of genre including object, installation, collage, painting, drawing, sculpture, performance. He creates totally unexpected, unfamiliar and unusual meanings by freely rearranging everyday common objects, and his large-scale installation occupying a large area with all kinds of objects is quite overwhelming. His paintings, which, in some respect, seem to an extension of the tradition of German Expressionism in their wild brushwork, bold colors, and distorted forms, successfully establish his own pictorial language through metaphorical images and texts. On the other hand, he produces figure sculptures so distorted as to be seen as mere accumulated mass, which are founded on his drawings, works of art in themselves, and gives impromptu and theatrical performances after making up as different roles. In this way, as is shown by the fact that his favorite expression is the word 'total', his art world is composed of such diverse genres.

Meese's artistic content comprehends all forms of traditional cultures and modern popular cultures ranging from traditional myth, classic music and literatur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philosophy to film directors and actors in 1960's and 1970's: such names as Wagner, Sade, Ezra Pound, Nero, Hitler, Stalin, Nietzsche, Heidegger, Stanley Kubrick and etc. are frequently found in his works, and different ages and different cultural products are intermingled to make new significances. He adds his unique texts to these works, creating a new intersection of image and text. By scribbling nonstandard words, slang, jargons, codes, jokes, newly coined words, as well as the language peculiar to him (he is known to have held his own arbitrary way of writing and speaking since his childhood) on books, photographs, posters, paintings, and the walls of exhibition room, Meese fiercely attacks contemporary German language and culture in general. Through all these works, he talks about war, power, violence, insanity, death, sexuality, and so on, revealing the irrational and unreasonable aspects hidden behind modern society that has worshiped logic and reason and tracing back the power beneath them.

In this sense, Arario Gallery would like to illuminate the varied artistic worlds of Jonathan Meese. Total 11 paintings including the large-size one <Saint Just à la mode> (3.7m×10m, 2005), 5 sculptures modeled after Nietzsche, a German philosopher and Parzival, a hero of the Grail quest, and 41 drawings created with the sculpture of Nietzsche will be displayed. And his installation entitled <Sorry, aber ich seh in Euch allen den Bronson> (1998) will be also shown. Especially, the artist's performance that will be given in Arario Green Sculpture Park on the opening day, Sep. 10. 7:00pm is expected to epitomize his art world itself. He, the artist who crosses many genres, gathers numberless images, and expresses them explosively, never provides explanation about his complex and multi-layered works. He just enjoys constantly presenting overflowing images. Thus, it is up to viewers to disentangle the meaning by tracking down the various clues the artist put in his art. Arario Gallery is going to leave another clues allowing as many interpretations as viewers in this solo exhibition.

ARARIO GALLERY

1. 전시 제목 Jonathan Meese

2. 전시 기간 2005. 9. 10 ~ 2005. 10. 30

3. 오프닝 리셉션 2005. 9. 10, 7:00 pm

4. 특별 프로그램

1) 작가 퍼포먼스 : 2005. 9. 10 7:00pm 아라리오 조각 광장

5. 전시 작품수 총 60여점

6. 전시 컨셉

조나단 메세(Jonathan Meese)는 1970년 도쿄에서 태어나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독일 작가이다. 그는 함부르크 예술 학교 학생 시절부터 엄청난 양의 드로잉, 회화, 사진, 책, 각종 인쇄물, 영화에 파묻혀 지낸 것으로 유명하며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작품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모았다고 한다. 1998년 베를린 비엔날레를 기점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그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유럽과 미국 전역을 오가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방대한 양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간 토마스 루프(Thomas Ruff)와 시그마 폴케(Sigmar Polke)라는 두 독일 거장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기획전에서 독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라이프치히의 젊은 작가들의 회화를 대거 선보였던 아라리오 갤러리는 이번 조나단 메세 개인전을 통해 또 다른 독일 현대 미술의 면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메세는 오브제, 설치, 콜라주, 회화, 드로잉,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일상의 평범한 사물들을 이용해 이를 자유롭게 재배열함으로써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낯설고 색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각종 오브제를 이용해 주어진 공간을 가득 메우는 거대한 규모의 설치 작업은 보는 이들을 압도당하게 만든다. 또한 그의 회화는 거친 붓질, 과감한 색채 사용, 왜곡된 형상 등 독일 표현주의 회화의 전통을 잇고 있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난해한 은유적 이미지와 텍스트들은 메세 특유의 회화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한편 그는 이와 함께 덩어리감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변형된 인물 조각상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드로잉들은 또 하나의 작업을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각기 다른 인물로 분장을 한 뒤 즉흥적이며 연극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기도 한데, 그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총체/종합(total)'이라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는 각 장르를 오가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메세는 전통 신화와 전설, 고전 음악과 문학, 근현대 역사와 철학 등의 주제를 자유자재로 끌어들이지만 아니라 60~70년대의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을 소재로 삼기도 하면서 독일 전통 문화와 현대 대중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의 작업 속에는 바그너, 사드, 에즈러 파운드, 네로, 히틀러, 스탈린, 니체, 하이데거, 스탠리 큐브릭 등의 이름이나 초상이 빈번히 등장하며 이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의 산물들은 서로 뒤섞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또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텍스트를 이러한 작업에 덧붙임으로써 텍스트와 이미지가 만나는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의적인 글쓰기와 말하기 방식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특유의 언어와 더불어 비표준어, 속어, 은어, 암호, 농담, 신조어 등등을 책이나 사진, 포스터, 회화, 전시장 벽 등에 낙서하듯 휘갈김으로써 현대 독일 언어와 문화 전반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메세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전쟁, 권력, 폭력, 광기, 죽음, 성 등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온 현대 사회의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측면을 폭로하고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추적한다.

아라리오 갤러리는 조나단 메세의 개인전을 통해 이와 같이 다양한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할 것이다. 이에 세로 3m 70cm, 가로 10m에 달하는 대형 회화 <Saint Just à la mode> (2005년도 작)를 비롯하여 총 11점의 회화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철학자 니체(Nietzsche), 성배의 전설 속 주인공 파르지팔(Parzival) 등을 모델로 한 조각 작품 5점이 전시될 것이며, 니체 조각과 함께 제작되었던 드로잉 41점이 같이 보여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8년도에 제작된 설치 작품 <Sorry, aber ich seh in Euch allen den Bronson>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오프닝 당일인 9월 10일 오후 7시에 아라리오 조각 광장에서 진행될 조나단 메세의 퍼포먼스는 그의 예술세계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각 장르를 넘나들며 수 많은 이미지를 끌어들이며 폭발적으로 이를 배출해 내는 메세는 그의 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작업에 대해 그 어떠한 설명도 붙이지 않는다. 그는 단지 넘쳐날 정도로 많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 그 자체를 즐긴다. 따라서 그가 던져 놓은 각종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속에 영겨있는 의미를 풀어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관람객의 몫이 된다. 아라리오 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보는 이에 따라서 수 많은 해석이 가능한 또 다른 단서들을 던져보고자 한다.